

사례보고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메모리’ 사례

Building Local Digital Archives:
The Case of “Gyeonggi-do Memory”

신정아(JeongA Shin)

E-mail: jashin@library.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팀장



논문접수 2020.08.05
최초심사 2020.08.06
게재확정 2020.08.13

ORCID

JeongA Shin
<https://orcid.org/0000-0002-3932-7399>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의 문화자원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인 ‘경기도메모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경기도메모리’를 시작하였으며 도내 각종 문화기관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경기도 안에서 생산하거나 경기도를 다루고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저장소이자, 연구자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ABSTRACT

“Gyeonggi-do Memory,” established and operated by Gyeonggi-do Cyber Library, is a local digital archive aiming to broaden the access to Gyeonggi-do’s cultural resource records. Since 2014, the library has been expanding its digital information service, starting with the said archive. Through cooperation with various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province, it builds the digital archive by collecting numerous records. In particular, the archive is expected to establish itself as a repository that stores records of production or dealing in Gyeonggi-do and a platform to share with researchers and citizens.

Keywords: 경기도메모리, 지역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도서관서비스, 사례연구
Gyeonggi-do Memory, Local archives, Digital archives, Library service, Case study

1. 들어가며

최근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쇠퇴해가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지역학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 연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기록화와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에서 생산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자원의 급증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향토자료실 또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발간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주민들과 연구자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도서관 인프라가 크게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문화프로그램은 다양해졌지만 지역자료에 대한 장서개발의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하고 있다.

2019년 국가가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공동체 삶의 기억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새로운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의 활성화와 지역별 아카이빙 활동 지원을 세부과제로 발표하였다. 이제 지역에 대한 기록의 수집, 보존, 활용은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2. 경기도메모리의 시작

2.1 추진 배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온라인 지역·향토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지역에 관한 책자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전자과일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였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 방식으로, 이러한 단순 서지정보 서비스로는 이용자들이 지역 정보를 이용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역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진행한 경기도 내 문화원 직원, 향토사학자 등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소실되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는 내부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축적해 온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고민과 함께 외부적으로 도내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생산기관들이 기대하는 지역자료 보존과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역할 확대요구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2 추진 과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2005년부터 행정기관 및 도서관 협조를 통해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수집, 디지털화하여 원문DB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12년에는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도서관 종합발전계획(2013-2017)’에서 경기도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자원의 구축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기도메모리’ 포털 운영계획을 포함하였다.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2014년에는 ‘경기도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사이트(memory.library.kr)를 열고 서비스를 다변화하였다. 한편 도내 지역문화의 발굴·조사·연구 및 활용에 있어서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발간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을 매해 개최하였다. 2016년 『경기도메모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경기도메모리의 비전으로 ‘경기도의 문화사관, 문화자원의 저장소, 재생산의 플랫폼, 문화자원의 허브’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오픈소스 오메카 기반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구축 DB의 품질고도화 사업과 함께 지금의 경기도메모리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은 첫 번째 지역 내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할 것. 두 번째 기록 자료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축할 것. 세 번째 기록을 통한 세대 간의 공감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간 추진 과정을 시작, 전개, 발전, 도약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경기도메모리 추진경과

단계	내용	주요서비스
1단계: 시작 원문DB 서비스 (2005 -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원문 DB 구축 •수동적인 자료 수집 •‘경기도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3-2017)’ 내 『경기도메모리』 구축 계획 포함 •개인기록물 수집·디지털 서비스 •Open Access Korea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DB ○ e-추억상자 ○ 경기도 OAK
2단계: 전개 경기도메모리 서비스 시작 (2014 -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메모리』 서비스 개시 •지역자료 서비스 다변화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TFT 운영 •‘경기도 메모리 종합발전계획’ 수립(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민 이야기 ○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 경기도 문화자원 LINK ○ 경기도 역사·민속 정보
3단계: 발전 아카이브로 전환 (2017 -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메모리』 서비스 신규 오픈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시스템 시범 구축운영 •기구축 DB 고품질화 사업 •경기천년기록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전시 •‘경기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내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 활성화 포함 •‘경기도가 궁금해’ 콘텐츠 서비스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서비스 ○ 타임라인별 서비스 ○ 공간별 서비스 ○ 온라인 전시 ○ 기획콘텐츠 개발
4단계: 도약 체계적 서비스 (2021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시스템 신규 구축 및 서비스 운영 •경기도대표도서관서비스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기반 정보서비스 ○ 웹자원 서비스

3.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

3.1 수집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활동단체와 구성원 및 개인과 단체가 생산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을 포괄한 망라적 수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인구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그 면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넓고 경기 남부와 북부간의 지역별 편차도 큰 편이다. 따라서 아카이브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 수집전략이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대내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수집 전략을 수행하지는 못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현행

기록관 체제에서는 도의 공공기록물 관리 및 이관 업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메모리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카이브로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비매품으로 발간되는 지역자료들을 아울러 민간의 단체나 개인이 생산하는 가치 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원본 또는 디지털 사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수집에 있어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여타의 물리적 도서관들과는 다르게 디지털도서관인 관계로 서고나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자료협력기관으로부터 실물자료를 수집하면 디지털화하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기관에 자료제공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실물자료의 대부분은 단행본 형태의 기증 자료이다.

수집의 대상범위는 디지털 서비스에 우선하여 경기도의 역사, 연구, 기록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상태와 자료의 희소성, 유일성, 이용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에 한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메모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부족한 분야나 시기,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자료도 우선한다. 주제 차원으로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 문화, 산업, 경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3.2 정리와 분류

수집 자료는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 건별로 기술요소에 따라 기술, 정리한다. 필수 메타데이터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중심의 메타데이터를 사용 중이며 더블링크어에 기반 하여 해외 메타데이터 사례를 커스터마이징하였다. 자료 기술요소는 더블링크어 기본영역에 ISAD(G)기록관련 영역을 추가하여 <표 2>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2> 경기도메모리 기술요소

구분	기술내용
기본영역	식별번호, 표제, 주제분야, 내용, 생산자, 발행자, 생산일자, 크기/분량, 언어, 기록물유형, 관련자원, 소장처, 기증자, 권한관계
내용영역	목차, 문화자원주제, 문화재종목, 공개여부, 주기, 관련기록
접근영역	시대, 시기, 지역, 공간, 사람
관리영역	수집유형, 수집형태, 가공, 이벤트이력, 기술일시, 기술자, 작업여부, 섬네일
추가영역	목차, 표준번호, 구술기록(구술자, 면담자, 구술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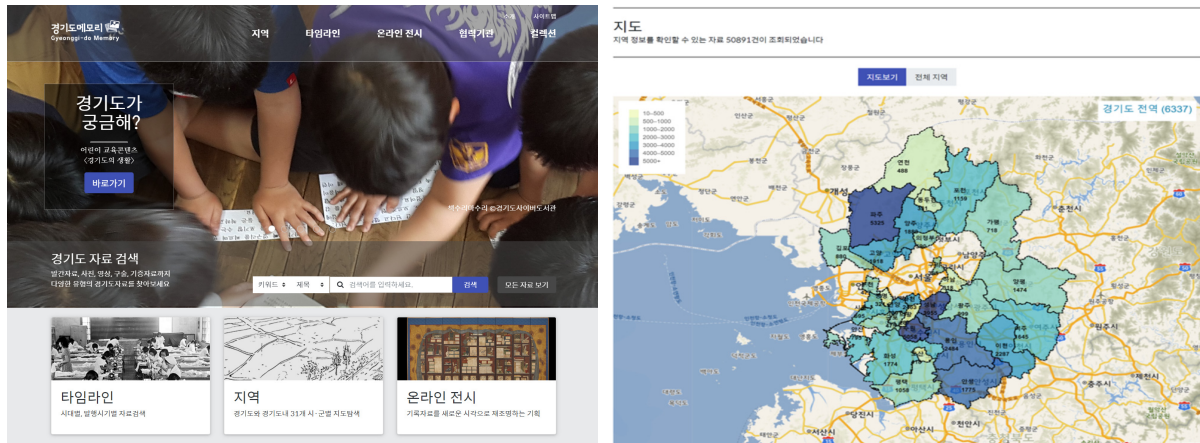
기본 분류는 자료형태별, 출처분류, 시대분류, 지역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제 분류는 대주제로 문화자원, 역사와지리, 정치와행정, 종교와문화, 인물과성씨, 이야기와생활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DB는 총 53,000여건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 중 17,000여건은 도서간행물, 35,000여건은 사진자료이며 이 중 22,000여건은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구축 자료이다. 경기도내 지역별 자료 구축현황은 기관의 자료협조도에 따라 파주, 수원, 성남 순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각 시군별로 300~5,000여건이 구축되어 있다.

3.3 서비스와 활용

경기도메모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목, 생산자, 발행처, 설명, 목차에 대한 키워드 검색과 경기도 지도기반의 지역 서비스, 자료가 다루고 있는 시대정보 기반으로 타임라인 서비스, 구축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온라인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검색한 자료는 자료형태, 생산자, 시대, 원본소장처, 주제 패킷 구분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주제별 온라인 전시를 구성한다. 경기도메모리 이용현황은 월평균 이용률이 약 2만여 건으로 일평균 5~600건 정도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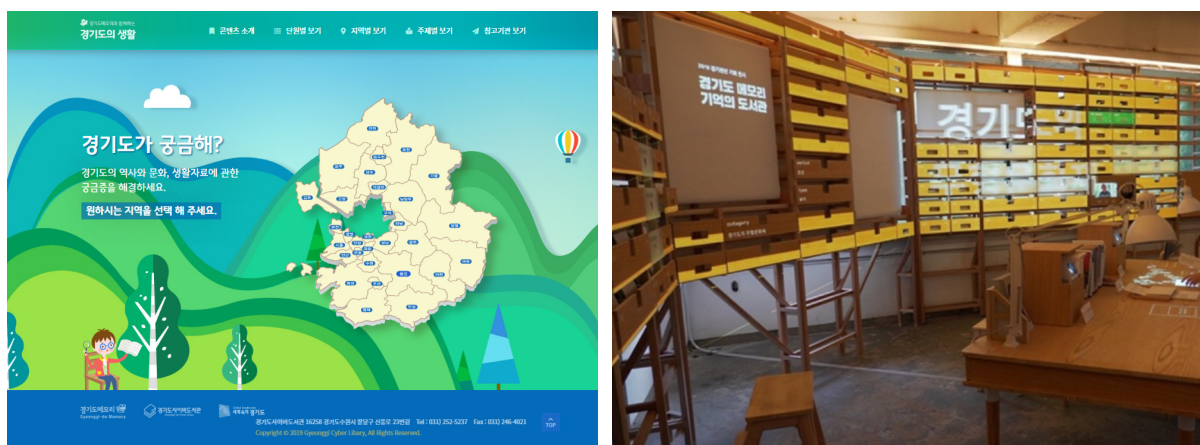


〈그림 1〉 경기도메모리 서비스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아카이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쉽게 활용 가능한 웹 콘텐츠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메모리의 기록정보와 연계한 다양한 웹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 공간에서 디지털 전시를 진행하였다

먼저 테마콘텐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온 경기도민들의 삶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구술기록으로 담아내는 <경기도민이야기>를 매해 구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지역화교과서 『경기도의 생활』을 분석하여 개발한 <경기도가 궁금해?> 콘텐츠는 학교현장에서 온라인 학습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기록을 물리적 공간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경기도메모리의 소장기록을 활용하여 경기천년의 시간을 담아낸 ‘경기천년메모리’ 기록콘텐츠도 있다. 경기도를 천년의 시공간을 품은 도서관으로 보고 특별한 기억과 이야기를 한 곳에 보여주기 위해 ‘기억으로 만나 미래를 열다’라는 컨셉으로 물리적 전시공간에서 디지털 기록과 도서관의 목록카드 형식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에서 활용되었다.



〈그림 2〉 경기도메모리 웹 콘텐츠

4. 나가며

지역 아카이브는 지역 사회내의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기록물은 지역 공동체나 구성원들의 사회적 활동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지역 기록정보에 접근하고 미처 알지 못한 지역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문화유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아카이브를 지향하고 개별 지역 기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지역자료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주력사업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운영 체제의 한계로 경기도메모리의 비전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 사람이 담당해 구축, 운영한 아카이브인 관계로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구현 모델에 대한 확신 부족과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장기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아카이브의 구성과 서비스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을 위해 만난 연구자, 협력기관과의 연계 활동은 이제 가장 큰 자산이다.

경기도메모리는 지금 새로운 도약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에 경기도는 경기도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개관할 예정이다. 대표도서관이 건립되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이관될 예정으로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대표도서관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경기도메모리 업무 및 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아카이브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역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메모리는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민간기록 및 문화유산의 망라적 수집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기관과 연계하는 활용 중심의 아카이브로, 명실상부한 경기도 지역 기록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 (2012).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2013-2017. 수원: 경기도.
경기도 (2018). 경기도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2019-2023 연구보고서. 수원: 경기도.
명시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6). 경기도메모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Geonggi-do (2012). Gyeonggi-do library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2013-2017. Suwon: Gyeonggi-do.
Geonggi-do (2018). Gyeonggi-do Library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2019-2023 Research Report. Suwon: Gyeonggi-do.
Myongji University Digital Archiving Research Institute (2016). Gyeonggi-do memory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study final report.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